

공공도서관 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 유형 및 그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luence of Spatial Types Based on Public Library Spatial Characteristics

육지혜 (Jihye Yook)**

김기영 (Giyeong Kim)***

초 록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기능 제공 등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관 공간 역시 도서관의 서비스를 반영해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서관 공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 공간과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간 상관관계를 탐색하고,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도서관 공간 유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관찰조사 결과, 도서관의 공간 유형은 '분리형', '부분통합형', '완전통합형' 세 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간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과 이용 목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공간 유형이 이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도서관 공간과 도서관 인식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도서관 공간 구성을 제안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have been diverse not only provision of information but also provision of cultural programs. According to this trend, the spatial composition of public libraries have been also changed to reflect the diverse role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in public libraries with two objectives: 1) to suggest spatial types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2)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patial types and users' perception.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we adopted observation and questionnaire survey as research methods. Consequently, three spatial types of public libraries are identified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several public libraries: divided, partially integrated, and integrated. Then,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re conducted with the questionnaire survey data. The results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users' perceptions and behaviors between the spatial types. That is, the spatial type influences user's percep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its first attempt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spatial factors in libraries and users' perceptions. Based on this, it is suggested that libraries should consider their spatial structures for developing user's positive perception on the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 공간 구성, 도서관 이용 행태, 도서관 인식, 도서관 공간 유형
public libraries, spatial structure of libraries, library user behavior, user perception on libraries, spatial types of libraries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한 것임.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finneon@yonsei.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kim@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2월 24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3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33(1), 111-137,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1.111]

1. 서론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정보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나아가 평생학습, 문화생활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책을 읽는 공간에서 공연 감상, 평생교육 강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의 변화는 이용자의 요구, 도서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도서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나타나는 도서관의 공간 구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공간 구성의 변화는 도서관 건축 경향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거나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나아가 도서관 공간구성의 변화는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서관 공간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은 낮은 편으로, 이전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의 경우 도서관 공간을 기능 또는 이용 동선에 따라 범주화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대해 서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서관 공간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다(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2012; 장아리, 손여림, 황연숙, 2008; 장윤금, 2015). 현재 도서관 건축, 공간 구성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는 드물며, 건축학계에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을 뿐이다(장아리, 손여림, 황연숙, 2008; 임선정, 정성욱, 임채진,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공간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도서관의 공간 유형이 이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다. 이 때,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을 시설, 기능, 영역 차원에서 관찰하여 도서관의 공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공간을 유형화하며, 통계 검증을 통해 유형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 공간이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따른 공간 유형을 제안하며, 공간 유형이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질문 1. 도서관 공간은 어떤 특성으로 정의되며, 정의된 물리적 특성에 따라 도서관 공간을 유형화할 수 있는가?
- 연구 질문 2. 도서관 공간 유형이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과 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뒤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도서관 공간 유형 구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과 도서관의 시설, 기능, 영역 등과 같은 관련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도서관 시설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봉사 등의 활동을 효과

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p. 242). 국립국어원(2015)의 온라인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시설은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배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간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과 달리 공간 개념에는 실제 이용 행위 혹은 감정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사한 정의로 LibQUAL+의 측정 항목인 ‘Library as place’가 존재하며, 이는 이용자의 행위를 포함하여 도서관 공간을 ‘장소(place)’로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도 LibQUAL+의 측정항목과 유사하게 이용 측면을 포함하여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공간을 상위 개념으로 보고,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시설’, ‘기능’, ‘영역’을 설정하였다. ‘공간’은 건축물 내의 시설, 장소 등의 총칭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도서관 전체를 칭하거나 열람실, 로비와 같이 도서관 내부의 공간 단위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공간은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기능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공간과 기능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공간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 공간이 나뉘기도 하며, 이 특성은 도서관 공간을 관찰한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김선애(2008)는 도서관 공간을 기능에 따라 저장 공간, 이용 공간, 업무 공간, 문화 및

프로그램 공간, 기타 다용도 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별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였다. 이현철, 서영우, 고은형, 최무혁(2006)의 연구도 비슷하게 도서관의 공간을 나누고 있으나 건축학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념을 사용하여 도서관 공간을 파악하였다. Waxman(2007)은 도서관을 휴식을 위한 기능을 하는 장소로 정의한 뒤, 휴식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만남 또는 지역사회 활동의 장소로 보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Waxman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학습장소로서의 공간 특성에 집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Applegate, 2009; Montgomery, 2014; Aabø & Audunson, 2012; Waxman, 2007).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공간 정의는 모두 도서관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도서관의 개념적인 역할이 실제 서비스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서비스의 제공’, ‘교육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동 지원’, ‘정보 중개자 역할’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으며(IFLA, 2013; IFLA & UNESCO, 1994), 이러한 역할이 실제 도서관에서 ‘자료 열람 및 이용’, ‘문화 생활’, ‘학습 지원’ 등의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공간을 정의하면, ‘자료 열람 공간’, ‘문화 및 프로그램 공간’, ‘전자, 멀티미디어 자료 공간’, ‘학습 및 이용자 공간’, ‘휴게 및 다용도 공간’, ‘사서 업무 공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 따라 하나의 공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

공간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도 도서관에 따라 복합적인 기능이 섞여서 제공되거나 한 공간 안에서 나름의 구분을 짓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설명하고 정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역’ 개념을 사용하여 기능을 구분하였다. 이 때 ‘영역’은 “활동, 기능, 효과, 관심 따위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로(국립국어원,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영역을 ‘도서관이 수행하는 하나의 기능 또는 서비스가 미치는 범위’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 안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할 경우 기능에 따라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지 통합되었는지 파악하여 공간 유형 구분에 응용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내린 각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능’은 도서관의 역할과 같은 개념적 요소가 서비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대개 한 ‘공간’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공간’은 두 가지 의미로 정의될 수 있는데, 기능이 나타나는 범위인 자료실, 멀티미디어실과 같은 단위 공간 혹은 도서관 건물을 칭할 수 있다. 공간과 유사한 개념인 ‘장소’는 공간 개념에서 이용자의 경험과 실제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장소 인식은 이러한 이용 과정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인 공간 인식을 의미한다. ‘시설’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비, 가구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 때 ‘영역’은 하나의 도서관 기능이 수행되고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한 영역 안에는 하나의 기능만 존재하며, 한 공간 안에 복수의 기능이 존재할 때 하나의 기능을 구분하는 경계가 된다.

2.2 선행 연구

2.2.1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 도서관 ‘공간’은 두 의미로 정의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도서관 공간에 대한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동시에 공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도서관 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 공간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공간 구성 추세를 파악하는 연구와 새로운 도서관 공간 유형을 제안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주된 분석 단위는 도서관 혹은 이용자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분석 단위로 할 경우 도서관 공간을 기능 또는 다른 요인으로 범주화한 뒤 연구를 수행하였고(공순구, 김형석, 이승근, 2010; 김선애 2008; 이현철 외, 2006; 임선정, 정성욱, 임채진, 2014), 이용자를 분석 단위로 할 경우 이용자의 이용 행태, 이용 동선을 분석 단위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천혜선, 이정미, 임채진, 2008; Cha & Kim, 2015; Mandel, 2013).

Jones(2006)는 호주의 한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공간 구성 과정을 서술했다. 이 연구는 공간 구성 과정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의 구현은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유행 및 정보 공유공간의 확대와 맞물려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를 국내외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사례로는 정보공유공간, 그룹학습공간 구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으며(장윤금,

2015), 이외에도 학생들의 이용행태를 기반으로 현재 도서관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있다(이수경, 김용승, 2008; Applegate, 2009; Waxman, 2007). 도서관 공간 연구는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도서관의 변화, 이용자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수행되며 새로운 공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들은 도서관 내부를 단순히 기능에 따라 구분하거나 이용자 관점에서 새로운 공간요구를 밝히는 연구에 집중하여 도서관 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일반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도서관 내의 공간을 구분하여 단위 공간을 서술할 때 ‘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도 동일하게 ‘공간’을 도서관 내부 공간을 나누는 단위로 사용하며, 공간 유형을 제안할 때에만 의미를 확장시켜 전체 도서관을 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2.2 도서관 이용 행태 및 도서관 인식

도서관 이용 행태와 인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도서관 이용 행태와 관련한 연구는 공간의 이용 행태를 통한 이용자 특성 및 요구 파악, 이용 선호 요인 탐색, 이용 행태 고찰 등으로 나뉜다.

강미희와 홍현진(2012)은 어린이 도서관에 국한하여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따른 공간 특성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용자의 특성 및 이용 행태와 공간 특성 간 관계를 살펴 공간 설계 시 공간 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특성 중 일부만 나타낼 수

있으며, 이용 행태에 맞는 공간 구성을 제안한 연구로 볼 수 있다. Crumpton과 Crowe(2009)는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주로 쓰는 공간과 선호하는 가구, 그리고 도서관 이용 행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위해 관찰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새 도서관 건물을 짓기 위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앉는 방식, 패턴을 분석한 Loder(2001)의 연구가 존재한다. Loder는 이용자의 선호 좌석, 이용 행태를 파악하여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알맞은 좌석을 도서관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좌석별로 이용률 차이는 존재하나 도서관 이용자마다 선호하는 좌석 유형이 있고 이용 행태에 따라 이용하는 좌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좌석 종류를 섞어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연구 흐름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 선호 요인, 공간 선택 요인을 파악한 연구들이 있다. 이수경과 김용승(2008)은 관찰 조사 및 면담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주 이용 동선과 이용 목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을 갖고 도서관을 방문하며, 로비 공간의 분위기가 도서관 공간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Cha와 Kim(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리를 고를 때 선호하는 요소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공간의 크기(Amount of space), 소음 정도(Noise level), 혼잡도(Crowdedness), 가구의 편안함(Comfort of furnishing), 청결도(Cleanliness)의 다섯 가지 요소가 상위 요소로 나타난다. 유사한 연구로 Loder(2000)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좌석 선호, 좌석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도서관 공간 구성, 배치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각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는 여러 양상을 띠며,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구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특정 도서관 또는 특정 시설에 국한하여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이용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항목을 측정하지만 이용자가 경험한 물리적 특성이 도서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 행태보다는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 역할 인식, 만족도, 충성도 등으로 나누어 각 개념을 사용한 선행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윤희운(2010)은 대구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소음을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이 관찰됐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데이터의 분석이 도서관 내 각 시설 단위로 이뤄져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는 약간 방향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로는 Potthoff, Weis, Montanelli(2000)의 연구가 있다. 이는 새로운 인식 조사 도구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서관 공간을 시설, 자료, 기능 세 차원으로 나누고 응답자가 세 차원 중 어떤 개념으로 도서관 공간을 인식하며 그 인식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보다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때 도서관 만족도와 충성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만족도와 충성도는 경영학에서 마케팅을 위해 주로 사용되던 개념이나 현재는 도서관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하나이다(Gonçalves & Sampaio, 2012; Martensen & Grønholdt, 2003). 분석에 앞서 만족도와 충성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만족도와 충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만족도는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표현되며(Ladhari, Ladhari, & Morales, 2011, p. 231),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충성도는 만족도에서보다 나아간 개념으로, 미래의 구입 의사, 구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감정적인 애착으로 정의할 수 있다(Bowen & Chen, 2001). 충성도가 도서관 분야에서 사용될 때는 도서관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 도서관 필요성 등을 이용해 측정한다(Martensen & Grønholdt, 200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충성도를 ‘도서관에 대한 이용지속의도, 이용추천의도, 도서관 필요성의 총칭’으로 정의한다.

2.2.3 공간과 인식의 관계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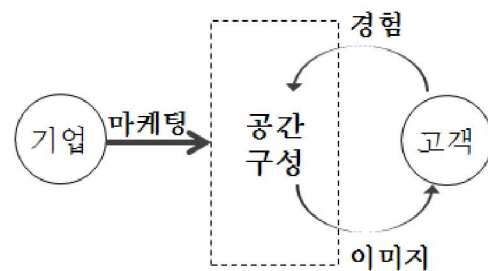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공간과 인식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으며, 관련 연구들을 건축학과 경영학 분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홍규와 오세정(2011)은 복합 쇼핑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공간에 대한 인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복합 쇼핑공간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복합 쇼핑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에 따라 유형을 네 가지로 범주화했으며, 각 유형 집단이 복합 쇼핑공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쇼핑몰이 지향하고자 하는 역할 간 차이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인식 차원에 따라 소비자를 다시 한 번 세분화한 뒤 복합 쇼핑공간이 지향하는 인식으로 소비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다.

이처럼 공간 특성 또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개념으로 공간 아이덴티티(space identity) 개념이 있다. 공간 아이덴티티는 “판매 환경과 기업의 상품에 대한 이미지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여 매장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기업의 Corporate identity 개선을 위한 표현 전략”으로(황보현욱, 2006, p. 41), 공간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공간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구축하여 전달하는가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관련 연구들은 공간이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브랜딩을 수행하는 요소로 보고, 공간 아이덴티티를 일관되게 형성하고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이종선, 2013; 황보현욱, 2006). 공간 아이덴티티와 유사한 개념을 다룬 연구로는 이경화와 김주연(2013)의 연구가 있다. 공간 브랜드의 정체성을 높여 장소의 의미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 브랜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장소 브랜딩을 통해 공간에 대한 정체성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간 특성, 물리적 특성은 해당 공간

을 방문하는 이용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며 공간 이용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된다. 공간 구성은 경영의 관점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쓰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자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공간 아이덴티티를 통한 기업 이미지 형성 과정

이와 유사하게 도서관 이용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심어지고 있을 것이며, 도서관 공간을 통해 도서관 인식을 유도하는 것도 도서관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서관의 공간 특성과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도서관 공간 유형 구분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공간 유형을 정의하고 공간 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여 공간 유형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 때, 공간 유형을 정의하기 위해 앞서 정의한 ‘기능’, ‘시설’, ‘영역’, ‘공간’ 네 개의 개념을 이용하여 각 도서관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공간을 유형화하였다.

도서관 공간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공간의 특징을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하나의 도서관 기능이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서관 시설이 통합을 이루고 있어도 기능에 따라 영역을 분리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공간을 기능이 아닌 단위 공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도서관의 공간 유형을 구분하며 통합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시설’, ‘기능’, ‘영역’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특성값은 ‘통합’과 ‘분리’로 양극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시설 통합’은 건축 구조상으로 도서관 공간의 내벽이 트여있거나 복층 구조를 이뤄 복도, 내부출입구 등을 통하지 않고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기능 통합’은 한 공간 안에 두 개 이상이 도서관 기능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영역 통합’은 ‘기능 통합’과 함께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공간에서 기능에 따른 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를 뜻한다.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도서관 공간의 경우 사서 데스크, 도서관 가구의 배치, 기능을 안내하는 팻말(멀티미디어실, “열람공간입니다.” 등이 적힌 안내판)을 이용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영역 구분 없이 기능이 섞여 있어

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를 ‘영역 통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라 시설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X로 표시하였다. 이 때 한 공간 내에 여러 기능이 존재하나 유사한 기능이 함께 있거나 공간 내에서 다른 기능에 따라 가구나 설비를 이용해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는 경우 <표 1>에서 △로 표시하였다.

<표 1> 도서관 공간 유형 구분

	시설	기능	영역	공간유형
A 도서관	X	X	X	분리
B 도서관	○	△	X	부분통합
C 도서관	X	△	X	분리
D 도서관	○	○	○	완전통합
E 도서관	○	○	○	완전통합
F 도서관	○	△	X	부분통합
G 도서관	○	○	X	부분통합
H 도서관	○	△	X	부분통합
I 도서관	X	△	X	분리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된 9개 도서관의 공간 통합 정도를 측정하였다. 세 기준에서 모두 통합이 관찰된 도서관의 경우 ‘완전통합형 도서관’으로, 기능 통합은 관찰되나 영역 통합이 관찰되지 않는 도서관의 경우 ‘부분통합형 도서관’으로, 시설 통합만 일부 관찰되는 도서관의 경우 ‘분리형 도서관’으로 정의하였다. ‘분리형 도서관’은 도서관 내부가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동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용 목적에 따라 다른 이용 동선이 유도된다. ‘부분통합형 도서관’은 일부에서 복층 구조 또는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통합이 관찰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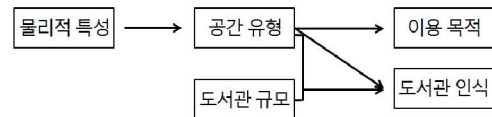
기능에 따른 영역 구분이 확실하다. '완전통합형 도서관'은 도서관 내부를 기능에 따라 나누거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시설 통합이 관찰된다.

분리형 도서관으로는 A 도서관, C 도서관, I 도서관이 있으며, 세 도서관 모두 영역과 시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공간에서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부분통합형 도서관으로는 B 도서관, F 도서관, G 도서관, H 도서관이 있으며, 복층구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 통합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부분통합형 도서관의 경우 하나의 단위 공간 내에서 기능에 따른 영역 구분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완전통합형 도서관으로는 D 도서관과 E 도서관이 있으며, 두 도서관 모두 시설의 통합뿐만 아니라 도서관 기능 또한 영역 구분 없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2 연구 가설 및 조사 도구 설계

앞서 제안한 도서관 공간 유형의 타당성을 통계기법을 사용해 검증하였으며, 제안한 공간 유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공간 유형 간 인식 차이에 집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도서관별 규모 차이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공간 유형과 규모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이원배치분산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인식과 도서관 시설 인식, 필요성 인식, 사서 인식, 의사소통 인식 총 8개 요인으로, 이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공간 유형과 8개 종속변인 간 유의한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모

형과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 연구 가설 1. 도서관 공간 유형은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2. 도서관 공간 유형과 도서관 규모는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 가설 3.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 목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각 유형별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도서관에 대한 물리적 특성, 이용,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각 유형별 특징을 측정함과 동시에 모든 도서관에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구성은 〈표 2〉와 같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 행태(방문 빈도, 방문 목적, 이용 동선, 주이용공간) 그리고 도서관 인식 등을 측정 항목으로 삼았다. 이 때 각 도서관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으면서 모든 도서관의 이용자가 응답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용 행태는 명목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공간 특성, 사서 인식 등과 같은 도서관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이용 행태, 방문과 관련된 문항을 측정하기 위해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영역	측정변수	문항수
도서관 이용	방문 빈도, 방문 목적, 동행인 여부, 방문 소요시간, 방문 수단, 체류 시간	6
도서관 이용 동선	접근 출입구의 위치, 도서관 출입구에 대한 인식, 도서관 최초 접근 공간, 최초 접근 공간 인식, 도서관 이용 동선, 공간을 이동하는 이유, 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이유, 주이용공간이 편안한 이유	16
도서관 공간 특성	도서관 이용 공간 선택 기준, 도서관 공간 인식, 도서관 공간 평가	21
도서관 인식	도서관 공간 배치,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자료, 충성도, 구전의도, 도서관 필요성, 도서관 공간 역할 인식, 도서관 공간에 대한 호감	21
인구통계	성별, 나이, 최종학력, 직업	4
계		68

도서관 방문 빈도, 방문 목적, 동행인 여부, 체류 시간 등 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서관 내부 이용 및 동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출입공간, 최초 접근 공간, 내부 이동 여부 등 16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 때 도서관 출입구, 최초 접근 공간 인식에 대한 문항은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의 연구와 이수경, 김용승(200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도서관 공간 특성은 도서관의 규모, 배치, 소음의 정도, 혼잡도, 조명, 가구 등 각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다양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천혜선, 이경미, 임채진(2008)의 이용행태연구, Cha와 Kim(2015)의 도서관 이용자의 물리적 선호 요인 탐색 연구의 상위 5개 선호 요인 등에서 이용 행태와 관련된 항목을 참조하였다. 도서관 인식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차성중(2011)의 연구와 표순희와 차성중(2009)의 이용자 만족도 지표를 참조하여 총 21개 항목을 구성하였다. 도서관 공간 평가는 리커트 척도가 나타내는 개념을 '1(매우 불편하다)', '2(불편하다)', '3(보통이다)', '4(약

간 편하다)', '5(매우 편하다)'로 측정하여 실제 이용할 때 느꼈던 인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속 변인인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21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도서관 인식을 측정, 정의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 인식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 공간 유형별 도서관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도서관 공간 역할 인식은 관련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도서관 공간의 역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공간의 역할은 학습, 교류, 휴식이 있었으며, 도서관의 기본 기능으로는 자료 제공과 독서, 교육 지원 개념 등이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을 '학습', '교류', '독서', '문화' 네 가지로 정의했다.

데이터 수집은 9개 도서관에서 수행되었다. 이 때 표본은 도서관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도서관 별로 50부~60부 내외로 설문지를 수집하여 총 495부를 수집하였으며, 불성실응답을 뺀 460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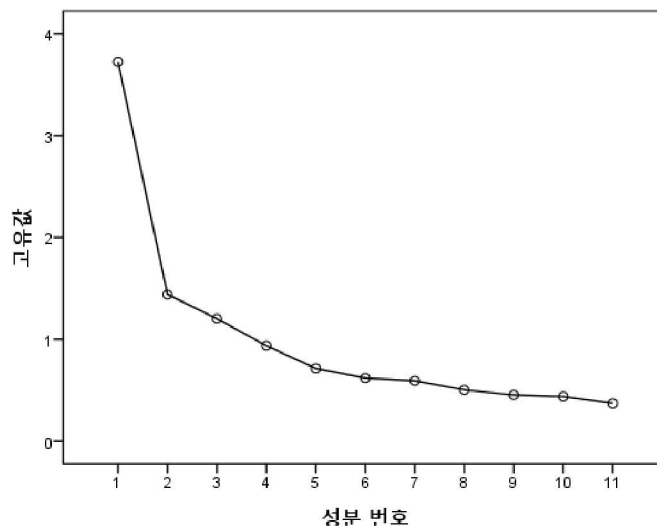
3.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 요인점수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변수별 요인분석 및 Cronbach's α 검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은 독립 변수 중 하나인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 문항과 종속 변수인 도서관 인식 문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은 '도서관 공간 특성' 영역에서 측정한 항목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0.5 이하로 낮은 9개 변수를 분석에서 제거하였다.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 총분산 설명력이 59%로 충분하지 않은 설명력을 보여 충분한 분산 설명력을 확보하고 스크리 도표 상 적절한 지점으로 판단되는 4개로 요인 개수를 고정한 뒤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3〉 참조). 요인 회전은 직교 회전인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의 속성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아 '공간'으로 명명하였으며, 두 번째 요인은 응답자들이 실제 이용과정에서 느낀 편리성에 대해 응답한 항목으로 실제 이용 경험을 통해 나타난 응답임으로 '장소'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의 경우 타인과의 대화 가능여부에 대한 개념으로 '의사소통'으로, 마지막 요인은 공간의 소음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로 '소음'으로 요인 이름을 명명하였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 독립 변수인 물리적 공간 특성의 Cronbach's α 계수는 물리적 환경이 0.775, 물리적 이용이 0.755, 의사소통이 0.605, 소음이 -0.786으로 모두 절대값이 0.6을 초과하는 값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표 3〉 참조).

다음은 종속변수인 도서관 인식 관련 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이다. 이 때 측정 항목 중 공통성이 0.5 이하인 '서비스만족도', '신속한 서비스', '이용추천의도', '충분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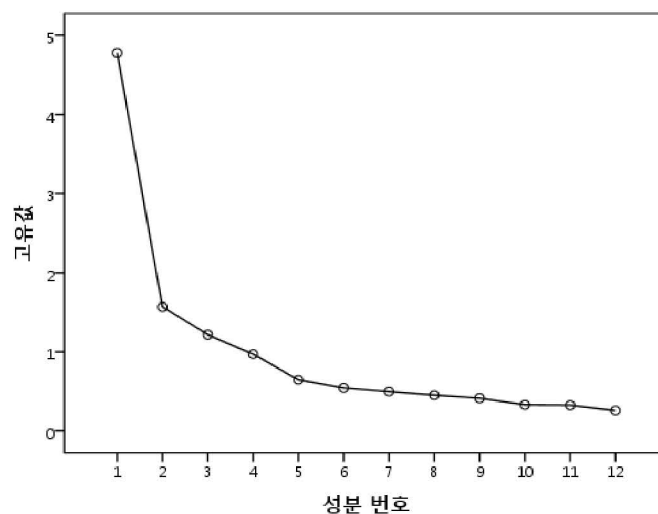
〈그림 3〉 독립변수(물리적 특성)의 스크리 도표

〈표 3〉 독립변수(물리적 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공간	장소	의사소통	소음	Cronbach's α
주이용공간개폐	.784	.072	.208	.020	.775
주이용공간청결	.780	.123	-.086	.188	
주이용공간가구	.736	.143	.195	.192	
주이용공간친밀	.670	.327	-.011	-.048	
위치이용편함	.116	.821	.182	.131	.755
내부접근편함	.192	.764	.044	.003	
사인이용편함	.199	.740	.214	.192	
이용자소통편함	.110	.170	.808	-.171	.605
사서소통편함	.070	.152	.799	.158	
주이용공간소음	-.027	-.041	.127	-.841	-.786
소음이용편함	.262	.237	.181	.671	
Eigen-value	3.723	1.441	1.203	0.937	설명된
분산(%)	33.844	13.096	10.937	8.518	총분산: 66.396%

변수 4개를 제거하였으며, '사서 능력' 변수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비슷한 요인적재값으로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모든 요인에서 0.4 이하의 요인적재값을 보여 다른 변수들과 개별 개념을 나타낸다고 판단해

제거한 뒤, 통계 분석에서 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 또한 독립변수와 동일하게 스크리 도표 상 적절한 지점으로 판단되는 4개의 요인을 기준으로 고정요인추출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종속변수(도서관 인식)의 스크리 도표

〈표 4〉 종속변수(도서관 인식)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
	시설	충성도	자료	사서	Cronbach's α
도서관배치	.824	.168	.118	.105	.855
내부이동편리	.801	.130	.209	.097	
도서관사인	.774	.201	.166	.153	
쾌적한이용	.706	.367	.040	.037	
도서관필요성	.086	.773	.121	.010	.788
이용지속의도	.343	.743	.235	-.067	
공간호감도	.097	.742	-.097	.213	
공간친숙도	.172	.727	.030	.117	
충분한자료양	.300	.062	.846	.059	.766
최신자료	.201	.199	.793	.216	
사서도움요청	.006	.060	.078	.904	.599
사서친절	.357	.191	.208	.669	
Eigen-value	4.778	1.568	1.217	0.971	설명된
분산(%)	39.819	13.069	10.139	8.090	총분산: 71.117%

첫 번째 요인의 경우 도서관 시설과 관련한 측정항목이 묶여 '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보았으며, 두 번째 요인은 이용지속의도, 도서관 필요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충성도'로 명명하였다. 이 때 충성도 요인에 '공간호감도', '공간친숙도' 변수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요인은 '자료', 마지막 요인은 사서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서'로 명명하였다. '사서능력' 변수의 경우 다른 요인에도 동시에 적재되어 요인분석에서 제거되었는데, 이는 사서에 대한 평가는 사서의 친절, 접촉 빈도뿐만 아니라 다른 개념도 함께 고려되어 형성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도서관 인식 요인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시설 요인이 0.855, 필요성 요인이 0.788, 자료 요인이 0.766, 사서 요인이 0.599로 사서 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7을 초과하는 값으로 신뢰도를 나타냈다(〈표 4〉 참조).

4. 데이터 분석

4.1 표본의 특성

설문 전체 응답에서 불성실 응답을 제거한 응답자 460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0.0%(184명), 여성이 60.0%(268명)이며, 연령 분포는 40대가 30.0%(14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대가 26.1%(120명), 30대가 19.8%(91명), 20대가 15.9%(73명), 50대가 5.7%(26명), 60대 이상이 2.2%(10명)로 나타났다. 최종학력 분포는 대졸자가 50.6%(233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 25.9%(119명), 대학원 재학 이상 10.7%(49명), 대학교 재학 중이 9.8%(45명)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는 학생이 36.0%(1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인이 22.0%(101명), 주부가 21.0%(98명)으로 그 다음으로 높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A 도서관	B 도서관	C 도서관	D 도서관	E 도서관	F 도서관	G 도서관	H 도서관	I 도서관
성별	남성	26 (48.1)	22 (44.9)	31 (53.4)	19 (36.5)	13 (27.7)	11 (26.8)	16 (32.7)	30 (49.2)	16 (16.3)
	여성	27 (50.0)	26 (53.1)	26 (44.8)	33 (63.5)	32 (68.1)	29 (70.7)	33 (67.3)	31 (50.8)	31 (31.6)
	무응답	1(1.9)	1(2.0)	1(1.7)	-	2(4.3)	1(2.4)	-	-	2(2.0)
연령별	10대	16 (29.6)	8 (16.3)	27 (46.6)	5 (9.6)	11 (23.4)	2 (4.9)	7 (14.3)	24 (39.3)	20 (20.4)
	20대	8 (14.8)	23 (46.9)	7 (12.1)	9 (17.3)	-	6 (14.6)	5 (10.2)	12 (19.7)	3 (3.1)
	30대	11 (20.4)	8 (16.3)	7 (12.1)	16 (30.8)	14 (29.8)	7 (17.1)	8 (16.3)	9 (14.8)	11 (11.2)
	40대	15 (27.8)	4 (8.2)	14 (24.1)	19 (36.5)	22 (46.8)	16 (39.0)	21 (42.9)	15 (24.6)	14 (14.3)
	50대	3 (5.6)	6 (12.2)	3 (5.2)	2 (3.8)	-	5 (12.2)	5 (10.2)	1 (1.6)	1 (1.0)
	60대 이상	1 (1.9)	-	-	1 (1.9)	-	5 (12.2)	3 (6.1)	-	-
	무응답	-	-	-	-	-	-	-	-	-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6 (29.6)	7 (14.3)	22 (38.6)	5 (9.6)	11 (23.4)	2 (4.9)	11 (22.4)	24 (39.3)	21 (42.9)
	대학교 재학	8 (14.8)	13 (26.5)	4 (7.0)	4 (7.7)	-	5 (12.2)	3 (6.1)	7 (11.5)	1 (2.0)
	대졸	28 (51.9)	26 (53.1)	18 (31.6)	33 (63.5)	33 (70.2)	23 (56.1)	32 (65.3)	18 (29.5)	22 (44.9)
	대학원 재학 이상	1 (1.9)	3 (6.1)	7 (12.3)	9 (17.3)	3 (6.4)	10 (24.4)	3 (6.1)	9 (14.8)	4 (8.2)
	무응답	1(1.9)	-	6(10.5)	1(1.9)	-	1(2.4)	-	3(4.9)	1(2.0)
직업	자영업	2(3.8)	2(4.3)	2(3.4)	6(11.8)	3(6.4)	1(2.4)	6(12.2)	1(1.6)	4(8.2)
	직장인	15 (28.3)	5 (10.6)	16 (27.6)	8 (15.7)	17 (36.2)	5 (12.2)	5 (10.2)	12 (19.7)	18 (36.7)
	학생	22 (41.5)	22 (46.8)	32 (55.2)	10 (19.6)	11 (23.4)	8 (19.5)	10 (20.4)	31 (50.8)	21 (42.9)
	전업주부	7 (13.2)	4 (8.5)	6 (10.3)	18 (35.3)	16 (34.0)	16 (39.0)	16 (32.7)	10 (16.4)	5 (10.2)
	취업/고시 준비중	2(3.8)	9(19.1)	2(3.4)	6(11.8)	-	3(7.3)	3(6.1)	6(9.8)	1(2.0)
	은퇴	2(3.8)	1(2.1)	-	-	-	2(4.9)	4(8.2)	-	-
	기타	3(5.7)	4(8.5)	-	2(3.9)	-	6(14.6)	5(10.2)	1(1.6)	-
	무응답	-	-	-	1(2.0)	-	-	-	-	-
총합		54	49	58	52	47	41	49	61	49

표본수(백분율)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 및 고시 준비생이 7.0%(32명), 자영업자가 5.9%(27명), 은퇴가 2.0%(9명) 순서로 나타났다.

4.2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도서관 인식 및 이용 행태

위에서 정의한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라 분리형 도서관 이용자 집단, 부분통합형 도서관 이용자 집단, 완전통합형 도서관 이용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도서관 공간 유형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서관 인식을 종속변수로 두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도서관 인식은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네 개의 요인인 '시설', '충성도', '자료', '사서'와 개별 개념으로 나타난 '서비스만족도' 변수를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인 네 개 변인(교류, 공부, 독서, 문화)으로 각 개념별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서관 공간 유형과 도서관 인식 요인(시설, 자료, 사서)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인식 요인 중 '시설' 요인($F(2, 444) = 3.277, p < .05, \eta^2 = .014$)과 '충성도' 요인에 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F(2, 444) = 4.322, p < .05, \eta^2 = .019$). Levene's test 결과 두 요인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어 사후 검정으로 Scheffe를 수행하였다. 사후 검정 결과, 시설 인식의 경우 분리형 도서관($M = 0.116, SD = 0.983$)과 완전통합형 도서관($M = -0.212, SD = 1.000$) 간 차이가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충성도 인식의 경우도 시설 인식과 동일하게 분리형 도서관($M = -0.158,$

$SD = 1.111$)과 완전통합형 도서관($M = 0.216, SD = 0.931$) 간 차이가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시설 인식과는 반대로 완전통합형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도서관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간 유형에 따라 도서관 형성되는 도서관 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성도 인식 차이는 공간의 정체성 형성 및 도서관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분리형 도서관과 부분통합형 도서관은 완전통합형 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크며, 내부 공간을 기능에 따라 구분해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내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 시설, 공공시설을 수용해 문화 프로그램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의 집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이용자에게 도서관 건물 전체가 도서관으로 인식되지 않고 건물 내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분리형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출입구가 도서관 로비 공간으로 연결되며, 로비를 거쳐 각자 이용 목적에 알맞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용 동선이 주로 나타난다. 반면 완전통합형 도서관의 경우 전체가 도서관 서가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형에서는 출입구와 로비를 거쳐 '자료실'로 들어가야 만나는 공간이 출입구를 거치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도서관의 정체성, 분위기가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공간 유형은 분리형 도서관과 완전통합형 도서관으로 동일하나 시설 인식 평균(분리형:

$M = 0.116$ > 완전통합형: $M = -0.212$)은 분리형 도서관이 더 높고, 충성도 인식(분리형: $M = -0.158$ < 완전통합형: $M = 0.216$)은 완전통합형 도서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리형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이용하기 편하고 쾌적하게 인식될 수 있으나 도서관 이용지속의도 및 필요성을 더 강하게 형성하는 것은 완전통합형 도서관 이용자로 보인다. 이처럼 공간의 특성이 이용자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유형에 따라 뚜렷한 물리적 특성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표 6> 참조).

다음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로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의 장소 인식을 네 가지로 나누어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그 평균을 비교한 결과 도서관 공간을 공부 장소로 보는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444) = 3.829$,

$p < .05$, $\eta^2 = .016$). 본 분석 역시 등분산이 가정되어 사후 검정으로 Scheffe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분리형 도서관($M = 4.112$, $SD = 0.922$)과 완전통합형 도서관($M = 3.798$, $SD = 0.979$) 간 차이가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는 완전통합형 도서관을 이용하면 도서관이 공부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서관의 공간 유형이 도서관 장소의 역할 인식에 영향을 끼치며, 그 중 공부하는 장소라는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도서관 공간 구성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통합형 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공간이 독립되어 존재하는 도서관은 없었으며, 공간 유형의 특성상 분리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열람실 기능을 제공하기도 어렵다. 또한 공간 전체가 트여 있는 완전통합

<표 6>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인식 일원배치분산분석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시설	분리형(a)	157	0.116	0.983	3.277*	a>c
	부분통합형(b)	193	0.013	1.002		
	완전통합형(c)	97	-0.212	1.000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충성도	분리형(a)	157	-0.158	1.111	4.322*	c>a
	부분통합형(b)	193	0.020	0.915		
	완전통합형(c)	97	0.216	0.937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료	분리형(a)	157	0.143	0.912	2.659	
	부분통합형(b)	193	-0.101	1.059		
	완전통합형(c)	97	-0.030	0.998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서	분리형(a)	157	-0.064	1.001	1.314	
	부분통합형(b)	193	-0.018	0.974		
	완전통합형(c)	97	0.140	1.034		

* $p < .05$

〈표 7〉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도서관 공간 역할 인식 일원배치분산분석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공간인식공부	분리형(a)	161	4.112	0.922	3.829*	a>c
	부분통합형(b)	199	4.075	0.942		
	완전통합형(c)	99	3.798	0.979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공간인식교류	분리형(a)	161	2.882	1.221	1.540	
	부분통합형(b)	199	2.714	1.112		
	완전통합형(c)	99	2.949	1.380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공간인식독서	분리형(a)	161	4.366	0.704	0.769	
	부분통합형(b)	199	4.312	0.800		
	완전통합형(c)	99	4.424	0.730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공간인식문화	분리형(a)	161	4.056	0.868	0.389	
	부분통합형(b)	199	4.070	0.896		
	완전통합형(c)	99	4.152	0.908		

* $p<.05$

형 도서관은 다른 유형의 도서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음 발생이 쉽고, 독립된 개인 공간을 획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부분통합형 도서관의 경우 열람실은 분리되어 있고 자료실이 통합 공간인 도서관과 열람실이 없고 자료실이 통합 공간인 도서관으로 나누어 공간 구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열람실이 없는 경우 이용자들이 자료실을 열람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간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공간 이용 행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분통합형과 분리형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은 휴식, 대화가 필요할 때 로비, 휴게 공간 등으로 나갔지만 완전통합형 도서관에서는 공간을 이동하지 않았다. 부분 완전통합형과 분리형까지는 도서관 공간의 이용이 기능에 따라 나뉘어 있고, 이용자들도 용도에 맞춰 공간을 이용하고, 도서관 실 내부는 독서, 공부 등으로 한정지어 이용하며 정숙을

유지했다. 반면 완전통합형 도서관에서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능과 다양한 이용 행태가 섞여 있어 공간 유형에 따라 이용방식의 차이가 관찰됐다(〈표 7〉 참조).

4.3 공간유형과 규모에 따른 도서관 인식 이원배치분산분석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도서관 공간의 특성 중에서도 열람실의 유무, 설비의 개수와 같이 도서관의 규모에 기인한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때 통계 검증의 결과가 공간 유형에 따른 것인지, 규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규모와 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공간 유형과 공간 규모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대해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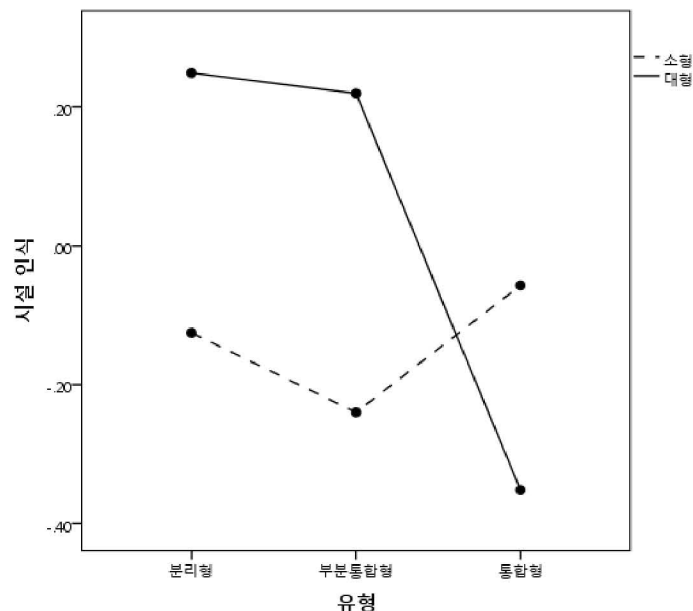
도서관 규모는 각 도서관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형'과 '대형' 두 개의 규모로 나누었으며, 공간유형별로 소형과 대형이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각 공간 유형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서관의 연면적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연면적을 사용하였으며, 연면적이 없는 도서관의 경우 공개되어 있는 도서관 면적을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규모와 건물 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F = 5.127$, $p < .01$ 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서관 소형과 대형, 두 집단 간 시설 인식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두 규모를 이용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8.682$, $p < .01$). 또한, 기술통계량을 함께 고려해볼 때 대형 규모 도서관에서는 완전통합형 도서관만 시설 평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분리형 = 0.249, 부분통합형 = 0.220, 완전통합형 = -0.352). 즉, 통합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배치와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기존의 도서관 배치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리형 도서관은 기능에 따라 자료실을 구분하여 이용자가 목적에 맞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반면, 완전통합형 도서관의 경우 처음 방문했을 때 도서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5〉에서 나타난 평균 차이가 어느 규모에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규모별로 유형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후검증으로 수행하



〈그림 5〉 도서관 공간 유형과 규모에 따른 시설 인식

〈표 8〉 대형 규모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시설 인식 일원배치분산분석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시설	분리형(a)	101	0.249	0.876	7.503**	a, b>c
	부분통합형(b)	106	0.220	1.043		
	완전통합형(c)	51	-0.352	0.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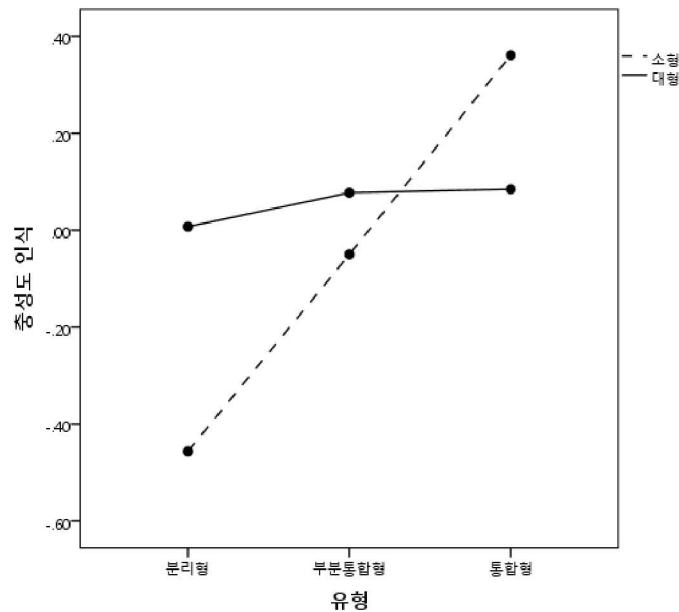
** $p < .01$

였다. 그 결과, 소형 규모 도서관 공간 유형 간에는 유형별 시설 인식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나 대형 규모 도서관 공간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255) = 7.503, p < .01, \eta^2 = .058$). 사후 검정 결과 분리형 도서관($M = 0.249, SD = 0.876$)과 완전통합형 도서관($M = -0.352, SD = 0.984$) 그리고 부분통합형 도서관($M = 0.220, SD = 1.043$)과 완전통합형 도서관($M = -0.352, SD = 0.984$) 간 차이가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소형 규모 도서관의 도서관 시설 인식은 공간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F = 0.565, p = 0.570$) 대형 규모 도서관의 도서관 시설 인식은 공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F = 7.503, p < .01$). 도표를 봤을 때, 소형 규모 내에서는 유형 간 시설 평균 차이가 크지 않고, 완전통합형 도서관의 시설 인식 평균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도서관의 규모와 건물 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F = 4.114, p < .05$ 로 도서관 충성도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서관 소형과 대형 규모, 두 집단 간 충성도 인식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두 규모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규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F = 1.615, p = .205$). 규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표 상에서 소형 도서관의 유형 간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소형 도서관의 경우 공간이 통합될수록 도서관 충성도 인식의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분리형 = -.456, 부분통합형 = -.050, 완전통합형 = .361).

도표에서 나타난 규모 내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규모별로 유형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후검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형 규모 도서관 공간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186) = 7.809, p < .01, \eta^2 = .083$). Levene's test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사후 검정으로 Dunnett C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완전통합형 도서관($M = -.057, SD = 1.005$)과 다른 두 유형인 분리형 도서관($M = -.125, SD = 1.121$)과 부분통합형 도서관($M = -.240, SD = .891$) 간 충성도 인식 차이가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규모 도서관의 도서관 충성도 인식은 공간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F = .183, p = .833$), 소형 규모 도서관의 도서관 시설 인식은 공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F = 7.809, p < .01$). 대형 규모 도서관에는 완전통합형이 아닌 다른 공간 유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역할 인식에서의 도서관 규모와 공간 유형 간 상호작용효과는 $F = .656, p = .519$ 로 공부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인



〈그림 6〉 도서관 공간 유형과 규모에 따른 충성도 인식

〈표 9〉 소형 규모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충성도 인식 일원배치분산분석

구분	공간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	Dunnet C
충성도	분리형(a)	56	-0.125	1.121	7.809**	c>a, b
	부분통합형(b)	87	-0.240	0.891		
	완전통합형(c)	46	-0.057	1.005		

** $p < .01$

식은 도서관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다. 도서관에 대한 역할 인식은 도서관 규모가 아닌 도서관 공간 유형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4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른 도서관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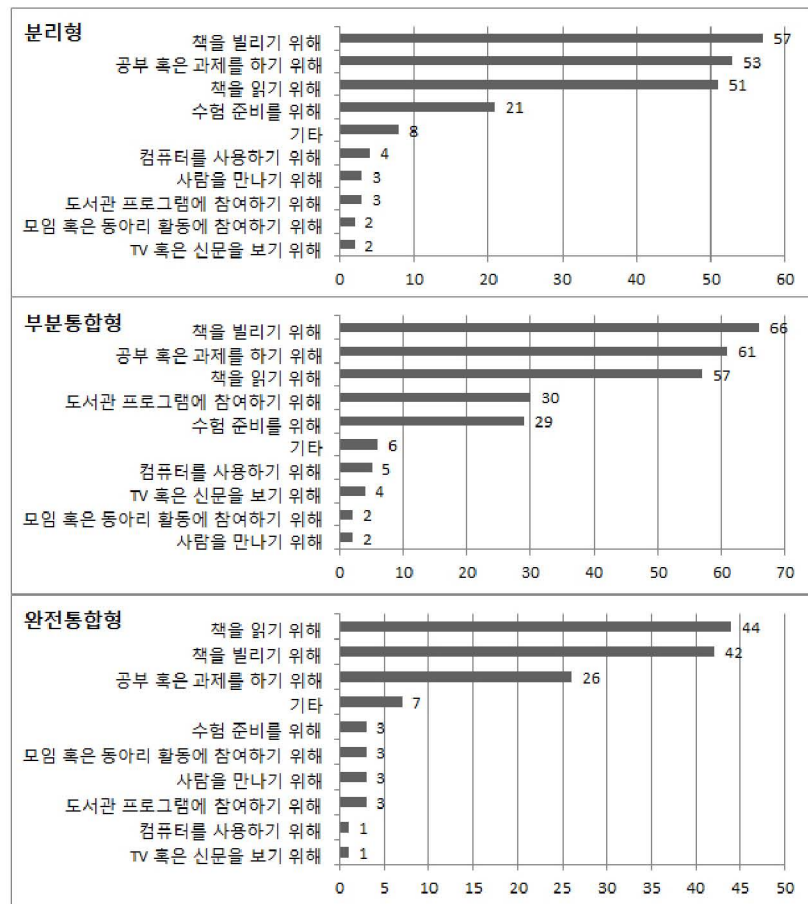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목적은 다음 〈표 10〉과 같으며, 이 문항의 경우 복수응답을 허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가장 주된 도

서관 이용 목적은 도서 대출이 27.55%(165명)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서가 25.38%(152명), 공부가 23.37%(140명)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네 번째 높은 비율은 수험준비가 8.85%(53명)로 상위 3개의 이용 목적이 전체 응답의 약 75%를 차지하여 이들이 주 이용목적으로 판단된다.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상위 3개 방문 목적인 독서, 대출, 공부와 도서관 공간 유형 간 χ^2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상위 방문 목적 중 독서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

〈표 10〉 도서관 이용 목적 (복수응답허용)

구분	응답자	
	인원(명)	비율(%)
책을 빌리기 위해	165	27.55%
책을 읽기 위해	152	25.38%
공부 혹은 과제를 하기 위해	140	23.37%
수험 준비를 위해	53	8.85%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36	6.01%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10	1.67%
사람을 만나기 위해	8	1.34%
TV 혹은 신문을 보기 위해	7	1.17%
모임 혹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7	1.17%
기타	21	3.51%
합계	599	100.00%



〈그림 7〉 공간 유형별 도서관 이용 목적

자의 수가 도서관 공간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간 유형 쌍마다 χ^2 검증을 재수행하여 독서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 집단의 차이가 어느 도서관 공간 유형 간 나타나는지 사후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리형 도서관과 완전통합형 도서관 간 독서 목적 방문 집단 차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chi^2(1, N=260) = 4.310, p<.05$), 부분통합형 도서관과 완전통합형 도서관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 N=299) = 7.526, p<.01$). 독서 목적 방문 이용자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분리형 도서관과 부분통합형 도서관 이용자는 기대빈도보다 적은 방문빈도를 보이며, 완전통합형 도서관의 경우 기대빈도보다 높은 방문빈도가 나타나 공간 유형에 따라 이용 목적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

χ^2 검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도서관의 공간 특성은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 행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는 각 공간 유형의 공간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완전통합형 도서관에서 독서 목적 방문자가 기대빈도보다 높은 방문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도서관이 보다 머무르기 편한 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도서관의 공간 특성은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했듯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중심 역할인 '독서', '자료 제공'에 알맞은 역할을 유도하는 것은 완전통합형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χ^2 검증 결과는 앞으로의 도서관 공간 구성에 있어 해당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도서관 공간 유형을 제안하고 공간 유형이 이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공간 구성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 개의 공간 유형 구분에 따라 유의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관 공간 구성에 따라 도서관 건축 경향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도서관 공간 구성이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 유형은 내부 공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완전통합형, 부분통합형, 분리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완전통합형 도서관의 경우 내부 공간이 통합되어 있고 도서관 기능에 따른 영역 구분도 모호한 특징을 가지며, 도서관 충성도 인식이 높고 시설 인식은 낮게 형성된다. 반면 분리형 도서관의 경우 시설 인식은 높으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학습을 위한 장소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서관 공간 유형 구분이 변별력을 가짐을 보여준다.

즉, 도서관의 공간 특성이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행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각 유형에 적절한 규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서관 공간 유형과 도서관 규모 간 상호 작용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규모의 차이가 크고,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도서관도 연면적이 1,000㎡ 부터 약 10,0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모든 도서관에 하나의 유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규모에 맞게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대규모 도서관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통합 유형의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원배치분산분석 결과 그래프를 고려할 때 대형 규모 도서관의 경우 부분통합형 또는 분리형 도서관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완전통합형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났듯이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다양한 공간구성과 기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점차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하였듯 아직 공공 도서관의 중심 역할은 독서와 자료 제공에 있다. 이런 중심 역할에 충실하고, 도서관에 대한 충성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유형 중 완전통합형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공간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공간 구성을 정의하고 분석함에 있어 도서관 내부에 있는 자료실, 열람실, 프로그램실 등과 같은 기능들의 비율은 따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각 유형별로 공간 구성과 유형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후속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을 공간 유형을 구분하는데 한정해 활용하여 각 물리적 특성과 도서관 인식 간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서관 공간 유형을 다른 공공도서관에 확대 적용하여 공간 유형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 홍현진 (2012). 어린이도서관의 공간특성과 이용행태에 관한 이용자 인식조사. 정보관리학회지, 29(1), 253-277.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1.253>
- 공순구, 김형석, 이승근 (2010).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체계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49-66.
-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국립국어원 (2015).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Retrieved from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선에 (2008). 공공도서관 공간운영을 위한 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85-105.
- 김홍규, 오세정 (2011). 복합 쇼핑공간에서의 몰링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유형. 주관성연구, 23, 221-237.
- 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윤희윤 (2010).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이용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73-95.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2.073>
- 이경화, 김주연 (2013). 장소 브랜딩을 통한 공간의 브랜드 정체성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9(1), 59-71.
- 이수경, 김용승 (2008). 국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행위조사·분석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6), 188-196.
-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 (2012). 대학도서관 공간 구성 연구 - P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133-15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2.23.2.133>
- 이종선 (2013). 공간 아이덴티티(Space Identity) 구축을 위한 사인시스템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조형미디어학, 16(1), 195-202.
- 이현철, 서영우, 고은형, 최무혁 (2006). 프로그램 복합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복합공간 관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2), 85-92.
- 임선정, 정성욱, 임채진 (2014). 대학도서관 공간 분류체계와 소요공간에 관한 기초적 연구: 2000년 이후 신축 리모델링 국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47, 103-112.
- 장아리, 손여림, 황연숙 (2008). 공공도서관의 실내현황 및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7(4), 75-83.
- 장윤금 (2015).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361-377.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361>
- 천혜선, 이정미, 임채진 (2008). 공공도서관에서의 행동장면을 통한 이용행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8), 49-58.
- 황보현욱 (2006). Space identity를 위한 기업 상업공간 파사드 디자인 연구. 디자인학연구, 19(1), 39-48.
- Aabø, S., & Audunson, R. (2012).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 138-149.
- Applegate, R. (2009). The library is for studying: Student preferences for study spac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5(4), 341-346.
- Bowen, J., & Chen,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ustomer loyal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13(4/5), 213-217.
- Cha, S. H., & Kim, T. W. (2015). What matters for students' use of physical library spac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1(3), 274-279.
- Crumpton, M., & Crowe, K. (2009). Using evidence for library space planning. Proceedings of the 2008 Library Assessment Conference, 51-64.
- Gonçalves, H. M., & Sampaio, P. (2012). The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loyalty relationship: Reassessing customer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moderating effects. Management Decision,

- 50(9), 1509-1526.
- IFLA. 2013.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statement-on-libraries-and-development>.
- IFLA & UNESCO (1994).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unesco-public-library-manifesto-1994>.
- Jones, D. (2006). People places revisited: Guidelines for public library buildings. *Australas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19(1), 5-12.
- Ladhari, R., Ladhari, I., & Morales, M. (2011). Bank service quality: comparing Canadian and Tunisian customer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29(3), 224-246.
- LibQUAL+ (2014). LibQUAL+. Retrieved from <https://www.libqual.org/>.
- Loder, M. (2001). Seating patterns and improvements in a small college library: A case study. *College & Undergraduate Libraries*, 7(2), 83-94. http://dx.doi.org/10.1300/j106v07n02_08
- Ludwig, L., & Starr, S. (2005). Library as place: result of a delphi study.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3(3), 315-326.
- Mandel, L. H. (2013). Finding their way: How public library users wayfind.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4), 264-271. <http://dx.doi.org/10.1016/j.lisr.2013.04.003>
- Martensen, A., & Grønholdt, L. (2003). Improving library users' perceived quality, satisfaction and loyalty: An integrated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9(3), 140-147.
- Montgomery, S. E. (2014). Library space assessment: User learning behaviors in the librar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0(1), 70-75.
- Potthoff, J. K., Weis, D. L., & Montanelli, D. S. (2000). An evaluation of patron perceptions of library space using the role repertory grid procedur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1(3), 191-202. <http://dx.doi.org/10.5860/crl.61.3.191>
- Walker, M. (1994). Designing the smaller library: A hospital looks to the future. *Computer Methods and Programs in Biomedicine*, 44(3), 185-192. [http://dx.doi.org/10.1016/0169-2607\(94\)90112-0](http://dx.doi.org/10.1016/0169-2607(94)90112-0)
- Waxman, L. (2007). The library as place: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for socialization, relaxation, restoratio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5(4), 341-346.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ang, Ari, Son, Yeo-Rym, & Hwang, Yeon-Sook (2008). A study on the interior conditions

- of public libraries and satisfaction of user.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7(4), 75-83.
- Chang, Yunkeum (2015). A study of the librarians' perceptions towards the changes in university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361-377.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361>
- Cheon, Hye-Sun, Lee, Jeong-Mi, & Lim, Che-Zinn (2008). A study of user types in public libraries according to behavior setting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4(8), 49-58.
- HwangBo, Hyun-Wook (2006). The design research on facade in corporate commercial space identity.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9(1), 39-48.
- Im, Sun-Jung, Jung, Sung-Wook, & Lim, Che-Zin (2014). A basic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patial composition and element space in university library - focus on the recently-built or newly remodelled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47, 103-112.
- Kang, Mi-Hee, & Hong, Hyun-Jin (2012). Survey on the user's recognition about spatial characteristics and user behaviors in the children's library.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253-277.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1.253>
- Kim, Hung Kyu, & Oh, Se Jung (2011). An attitudinal factors of malling at the multiplex shopping mall. Journal of Human Subjectivity, 23, 221-237.
- Kim, Sun-Ae (2008). Constituents analysis of guidelines for public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 85-105.
- Kong, Soon-Ku, Kim, Hyeong-Seok, & Lee, Sung-Geun (2010). Study on the public library space guideline of integrated measurement and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49-66.
- Lee, Hyeon-Cheol, Seo, Young-Woo, Ko, Eun-Hyung, & Choi, Moo-Hyuck (2006).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complex space based on a complex program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2(12), 85-92.
- Lee, Jong-Sun (2013). Development of the checklist for the evaluation of the sign system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space identity. A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6(1), 195-202.
- Lee, Kyung Hwa, & Kim, Joo Yun (2013). A study on the space brand identity through place brand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9(1), 59-71.
- Lee, Soo-Kyung, & Kim, Yong-Seung (2008).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by investigation

- and analysis of user's behavior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7(6), 188-196.
- Lee, Yong-Jae, Park, Kyung-Seok, & Kim, Bo-In (2012). A study on spatial composition of university library focused on P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2), 133-15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2.23.2.133>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ies.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basic Korean dictionar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basic Korean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Yoon, Hee-Yoon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pace and facility use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73-95.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2.073>